

의대생과 비의대생의 AIDS 및 성병에 대한 지식

허신희 · 최윤선 · 김정은 · 김선미 · 김수현 · 김대균 · 김수연 · 홍명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교실

Medical Students' Knowledge about AIDS/STDs: Comparing with Non-medical Students

Sinhoe Her, M.D., Youn Seon Choi, M.D., Ph.D., Jung Eun Kim, M.D.,
Seon Mee Kim, M.D., Ph.D., Su Hyeon Kim, M.D., Dae Gyeun Kim, M.D.,
Su Yeon Kim, M.D., and Myung Ho Hong, M.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orea University Guro Hospital,
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Purpose: Usually college students having a strong desire for sexual behavior, thus, knowledge abou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is very important to prevent inf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knowledge about AIDS and STDs in the college students, and to provide a basis for sex education for them. **Methods:** The subjects were 86 medical students and 59 non-medical students at One University. The data were collected by self-reported questionnaire which were consisted of 19 items (8 for AIDS, 11 for STDs). **Results:** The frequency of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males than females (44.0% vs 7.1%, P=0.001) and in medical students than non-medical students (36.1% vs 11.9%, P=0.015). Among 19 questions, 8 questions' scor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medical students than non-medical students. **Conclusion:** Medical students had higher score for knowledge about AIDS and STDs than non-medical students. However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knowledge according to a experience in sexual intercourse. (Korean J Hosp Palliat Care 2007;10:85-90)

Key Words: AIDS, STDs, Medical students

서 론

한국에서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2년 64명, 2003년 62명, 2004년 72명, 2005년 70명으로,¹⁾ 전 세계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수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01년 약 36만 명에 이르고, 15세~49세 사망원인의 40%가 에이즈로 인한 것에 비하면 아직 적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²⁾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자 수의 증가로 이들

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모든 국가의 당면 문제가 되었다. UNAIDS의 2005년 보고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HIV 감염자 수가 약 7,000만 명에 달한다. 미국 LA에서 1981년 첫 번째 에이즈 환자가 발견된 이래, 1985년 한국에서도 첫 번째 에이즈 환자가 발견되었고, 2005년 질병관리 본부의 보고에 따르면, 약 3,300여명의 HIV 감염자가 보고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현황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감염자수는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전문가 집단의 진단에 의하면 최소한 이 숫자의 3배에서 5배까지 그리고 UNAIDS는 10배까지도 잠재적으로 감염 숫자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4)}

대부분의 HIV의 감염경로는 성 접촉에 의한 감염으로 전체의 97.1%를 차지하며, 그 외에 수혈, 혈액제제, 모체의 태반을 통한 태아 수직감염, 약물 주사 등이 원

접수일: 2007년 2월 28일, 승인일: 2007년 6월 1일
교신저자: 최윤선
Tel: 02-2626-3275, Fax: 02-837-0613
E-mail: younseon@korea.ac.kr

인이 되고 있다. 성접촉에 의한 감염자 중 이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49.1%,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은 50.9%를 나타내어, 이전의 동성애자에게만 유행한다는 편견에서, 이제는 이성에 의한 성접촉으로 감염되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감염자의 60~70%가 20~40대에 이르는 생산연령이고, WHO의 자료에 의하면, 해마다 전체 에이즈 신환발생의 45% 정도가 15~24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 특히 에이즈에 대한 치료방법이나 백신개발이 아직까지 어려운 현재에서는 실제로 가장 좋은 치료방법은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에이즈의 특성과 감염경로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성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예방 교육프로그램이 중요하다.⁶⁾

에이즈 감염자 및 환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치료부담과 죽음에 대한 공포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특히 의료서비스 측면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가들이 이제는 에이즈 환자에게도 관심을 갖고 돌볼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의대생들은 긍정적 역할모델을 보여 줄 미래의 의사이자 향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그리고 환자 교육을 통한 건강증진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다. 이에, 건강 관련 지식 중 AIDS 및 성병 관련 의학지식 정도를 조사하고 비의대생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AIDS 및 성병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른 예방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2004년 3월,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에서 의과대학 '가정의학' 강의에 참석한 의대 본과 2학년 학생 110명과 같은 대학 교양과목인 '인간과 의학' 강의에 참석한 1학년년부터 4학년까지의 비의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 대상 310명 중에서 총 158명(의대생 91명, 비의대생 67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한 학생을 제외한 145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의대생은 86명(남학생 45명, 여학생 41명)이었고, 비의대생은 59명(남자 30명, 여자 29명)이었다.

2. 에이즈 및 성병에 대한 지식

총 19문항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는데, AIDS 감염경로 관련 지식 8문항, 성병 관련 지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 당 옳은 답일 경우에는 1점, 모르거나 틀린 답일 경우에는 0점으로 계산하였다. 에이즈 관련 지식 9문항은 DiClement 등⁷⁾과 오⁸⁾가 개발한 도구 기초로, 저자들이 감염경로 관련 지식만을 선택하였으며 성병관련지식은 장⁹⁾이 미국의 질병관리 센터에서 제시한 PMI (Preventive Marketing Initiative Strategic Plan¹⁰⁾을 기본 틀로 하여 만든 구조화된 설문지 항목 중 성병 관련 지식을 항목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성경험 유무를 조사하였다.

3. 자료 분석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연속변수의 경우 비모수 검정을, 범주형 변수는 Chi square test와 Fisher's exact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을 5% 이하로 하였다.

결 과

1. 연령 및 성별 분포

총 분석대상자 145명 중, 남학생은 75명(51.7%), 여학생은 70명(48.3%)이었다. 연령 분포는 20대가 130명(89.7%)이었고, 10대 10명(6.9%), 30대 5명(3.5%)순이었다. 의대생은 86명(59.3%), 비의대생 59명(40.7%)이었다.

2. 성경험 여부

의대생이 비의대생보다 성경험의 비율이 높았고(36.1% vs 11.9%, $P=0.015$), 의대생과 비의대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경험의 비율이 높았다(44.00% vs 7.14%, $P < 0.001$).

3.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 점수(표 1)

전체 응답자의 95% 이상이 옳게 응답한 질문은 "AIDS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제제를 수혈했을 때 AIDS에 걸릴 수 있다", "AIDS에 감염된 사람과 성교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AIDS에 감염된 사람과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AIDS에 걸릴 수 있다."였고, 두 군 모두에서 65%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던 질문은 "성병은 대중목욕탕이나, 공중화장실에서 걸릴 수 있다."

표 1.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에 대한 문항별 정답률 및 총점.

문항	정답률 N (%)		P-value*	
	의대생 (N=86)	비의대생 (N=59)		
AIDS 관련 8문항	1. AIDS에 감염된 혈액 또는 혈액재제를 수혈했을 때 걸릴 수 있다	85 (98.84)	58 (98.31)	0.787
	2. AIDS에 감염된 사람과 성교하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84 (97.67)	58 (98.31)	0.793
	3. AIDS에 감염된 사람과 주사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AIDS에 걸릴 수 있다	86 (100.0)	57 (96.61)	0.086
	4. AIDS에 감염된 사람이 사용했던 바늘로 문신을 하거나 귀를 뚫는다면 AIDS에 걸릴 수 있다	84 (97.67)	51 (86.44)	0.009
	5. AIDS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기를 공동으로 사용할 때 AIDS에 걸릴 수 있다	70 (81.40)	40 (67.80)	0.060
	6. AIDS는 공중 목욕탕이나 공중 변소에서 걸릴 수 있다	79 (91.86)	44 (74.58)	0.004
	7. AIDS는 감염자와 같은 직장이나 같은 집에 있을 때 감염될 수 있다	82 (95.35)	50 (84.75)	0.028
	8. AIDS 환자의 피를 빨아먹은 모기에게 물리면 AIDS에 감염될 수 있다	62 (72.09)	24 (40.68)	0.001
성병 관련 11문항	9. 한번의 성교만으로도 성병에 걸릴 수 있다	65 (75.58)	50 (84.75)	0.181
	10. 성교 시 콘돔을 사용하면 성병을 예방할 수 있다	52 (60.47)	42 (71.19)	0.184
	11. 성병에 걸렸던 사람은 불임이 될 수 있다	72 (83.72)	36 (61.02)	0.002
	12. 성병에 걸린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성병에 감염될 수 있다	81 (94.19)	44 (74.58)	0.001
	13. 성병에 한번 걸린 후에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78 (90.70)	48 (81.36)	0.101
	14. 성관계 전이나 후에 항생제를 먹으면 성병이 예방된다	75 (87.21)	44 (74.58)	0.051
	15. 성관계 후 성기를 비누로 씻으면 성병이 예방된다	78 (90.70)	53 (89.83)	0.862
	16. 성관계 즉시 소변을 보면 성병이 예방된다	63 (73.26)	56 (94.92)	0.001
	17. 성관계 중 사정을 하지 않으면 성병이 예방된다	84 (97.67)	53 (89.83)	0.042
	18. 성병은 공중 목욕탕이나 공중 변소에서 걸릴 수 있다	51 (59.30)	38 (64.41)	0.535
	19. 성병에 한번 걸렸던 사람은 면역이 생겨서 다음에는 걸리지 않는다	85 (98.84)	55 (93.22)	0.069
AIDS관련 문항 점수 합		7.349±0.76	6.475±1.16	0.001
성병관련 문항 점수 합		9.116±1.54	8.797±2.05	0.285
총점		16.465±1.87	15.271±2.50	0.001

*fisher's exact tests were performed.

표 2. 남학생에서 성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 점수* (n=75명).

성경험	의대생 (45)		비의대생 (30)	
	유	무	Mean±S.D (n)	Mean±S.D (n)
AIDS 관련지식 (8문항)	유	7.3±0.91 (27)	7.0±0.63 (6)	
	무	7.7±0.46 (18)	6.7±1.20 (24)	
성병 관련지식 (11문항)	유	9.4±0.89 (27)	9.2±0.98 (6)	
	무	9.8±1.17 (18)	9.4±1.24 (24)	
총점	유	16.7±1.32 (27)	16.2±1.47 (6)	
	무	17.5±1.54 (18)	16.0±1.90 (24)	

표 3. 여학생에서 성경험 유무에 따른 지식 점수* (n=70명).

성경험	의대생 (41)		비의대생 (29)	
	유	무	Mean±S.D (n)	Mean±S.D (n)
AIDS 관련지식 (8문항)	유	7.500±0.58 (4)	6.000±0.00 (1)	
	무	7.189±0.74 (37)	6.214±1.20 (28)	
성병 관련지식 (11문항)	유	9.250±1.50 (4)	7.000±0.00 (1)	
	무	8.568±1.89 (37)	8.286±2.61 (28)	
총점	유	16.750±0.96 (4)	13.000±0.00 (1)	
	무	15.757±2.17 (37)	14.500±2.90 (28)	

였다. 두 군 간에 정답률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질문은 총 8문항이었다.

의대생과 비의대생 간의 AIDS 관련 8문항의 총점은 각각 7.3±0.76, 6.5±1.16 (P=0.001)이었고, 전체 19문항의 총점은 16.5±1.87, 15.3±2.50 (P=0.001)으로 두 군 간의 정답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났다. 유의한 차이를 보인 8문항 중, 7문항은 의대생이 비의대생에 비

하여 점수가 높았으나, 흥미로운 것은 “성관계 즉시 소변을 보면 성병이 예방된다.”는 항목만 유일하게 비의대생의 정답률이 의대생보다 높았다(P=0.001).

4. 성별과 성경험 유무에 따른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 점수(표 2, 3)

남학생 및 여학생 모두 의대생과 비의대생 간의 성경

험에 따른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고 찰

성전과 질환(이하 성병)은 인류가 존재한 이래 경험하고 있는 중요한 질병 중의 하나이다. 성병은 1960년대부터 대두된 성행동에 대한 자유로운 개방적 태도, 성해방 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표면화됨에 따라 증가되었다. 세계적으로는 1970년대에 범 지구적 노력의 결과로 실제로 임질과 매독의 발병률은 점차 감소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발생되기 시작한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하 AIDS)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건강문제로 대두되었고, 일반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간주되었던 성병에 대한 관점을 뒤바꾸어 놓았다. 과거에는 성병이 매춘이나 성생활이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제한된 일부 계층에 감염되었으므로 일반 대중의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았다. 아울러 1970년대 이후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되었고, 경제수준이 향상되어 성병에 감염되는 경우 비교적 쉽게 치료할 수 있게 되어 성병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성병과는 달리 AIDS는 1981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진단된 후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감염 경로가 대부분 혈액과 성교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며, 잠복 기간이 길어 그로 인한 높은 전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에 대한 원인규명과 치료 방법 그리고 전염을 막기 위한 노력과 연구들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결은 요원하다. 따라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며, 올바른 예방법을 숙지하여 행하면 거의 100% 예방이 가능하다.¹¹⁾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기간으로 사춘기를 지나 신체적으로 완전한 성인이며 이성교제와 성행동을 본격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단계이다.¹²⁾ 또한 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충동이 가장 고조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강위험행동에 유혹을 받거나 충동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¹³⁾ 외국의 경우 청소년이나 대학생들의 50% 이상이 성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 활동 시작의 연령이 점점 적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¹⁴⁻¹⁶⁾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¹⁷⁾ 남학생의 43.7% 여학생의 7%가 실제로 성교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고 응답

하여 대학생들의 성적인 활동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은 성병문제에 더 취약한데, 성병은 20대 미혼층, 10대 미혼층, 그리고 30대층의 순서로 발생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5~29세의 청년층에서 성병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⁸⁾ 미혼 대학생은 성적인 욕구가 왕성하지만 정상적인 해소의 통로가 없고 기혼 남녀보다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자신의 성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더러 성병 관련 지식이 부족하여 성 관계로 인한 성병에 대하여 훨씬 취약하다. 따라서 성교, 임신과 함께 치명적인 건강 문제인 성병 등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러한 성 문제를 경험한 대학생이나 성 문제를 아직 경험하지 않은 대학생이 성병에 관련된 적절한 지식을 갖고 성병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행위적으로 준비시킬 수 있는 성병 예방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도 성병이나 AIDS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한 몇몇 연구들이 있는데, 전국 5개 대도시의 10개 대학과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가보고 방식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에 따르면,⁹⁾ 성교 경험이 남학생은 57.1%, 여학생은 10.3%이었고, 성병의 경험은 남학생이 10.3%, 여학생은 3.4%였으며, 성병 관련 지식은 18점 중 7.8점과 7.84점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혼전성수용성이 높고 성병 감염율도 높았으나 성병 예방에 관하여는 행위수준이 아닌 전반적인 보편적 관심의 수준으로서, 성병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건계열 대학생과 비 보건계열 대학생의 B형 간염과 AIDS에 대한 지식도 조사에서는, 전염성 질환의 관심도, 손 세척, 잇솔질 같은 개인위생과 AIDS에 관한 지식이 보건계열 대학생이 약간 높았다.¹⁹⁾ 남자 대학생의 성병과 에이즈 인식에 관한 조사에서는,²⁰⁾ 에이즈에 대한 지식수준은 성 경험과 관련이 없었고, 성병에 대한 지식은 성경험이 있는 군에서 지식수준이 낮았다. 또한 일부 군 사병을 대상으로 성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²¹⁾ 사병들의 에이즈 관련 지식 정도가 낮았고, 지식과 태도 간에는 매우 약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의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수준에서, 의대생과 비의대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 8 문항 중, 7문항에서 의대생의 점수가 높았고, 총점도 의미 있게 높았는데(P=0.001),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의료

군(의사, 한의사, 의대생, 간호사, 간호조무사)과 비의료군을 대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건강지식을 조사한 연구들과²²⁾ 유사한 결과이다. 이외에도, 의사와 일반인의 건강행위를 비교한 외국의 연구들로는 의사와 일반인,²³⁾ 의사와 법률가,²⁴⁾ 의대생과 법대생을 비교한 것이 있고,²⁵⁾ 국내에서는, 전공의와 일반인,²⁶⁾ 의사와 일반인,²⁷⁾ 의대생과 법대생의 건강증진 행태에 관한 비교 연구²⁸⁾ 등이 있는데, 모두 의사가 일반인보다, 의대생이 비의대생보다, 의료군이 비의료군보다 의학 상식의 수준이 높았고 양호한 건강증진행태를 가지고 있으며 건강증진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성경험자의 비율은 다른 연구들에서^{13,29)} 조사된 국내 대학생의 성경험률(남 40~50%, 여 7~11%)과 유사하였고 성경험의 유무 따른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매춘부와의 성경험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여 AIDS에 대한 지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³⁰⁾ 유사하였다.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성행동에 대해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도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에 관한 고민이나 문제를 전문적인 상담자와 상의하기보다 주변의 친구들과 대화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다.³¹⁾ 성병의 전파는 의도적인 성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성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인구집단인 성경험자들의 성병관련 지식이 성경험이 없는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성병 및 AIDS에 대한 바른 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개 의과대학생과 교양과목 수강생들 310명 중 145명이 응답하여 대표성을 갖기에 부족하다는 것, 이는 성병과 AIDS의 관련 지식에 대한 설문을 하면서 예민한 문제인 성경험에 대한 조사를 하여 응답률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성별이나 연령 이외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를 많이 수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험이 의대 남학생이 60%, 여학생 9.8%, 비의대 남학생 20%, 여학생 3.5%로 의대생이 남녀 모두 3배정도 높았는데,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론적으로, 질병의 예방은 개인의 건강증진행태의 확인 및 측정, 그리고 이러한 질병의 위험요소를 감소 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고³²⁾ 이러한 질병 예방 및 건

강증진에 있어 의사의 참여가 중요하다.³³⁾ 환자에게 교육과 상담을 시행하고 또한 스스로 건강행위를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의사 자신의 역할 모델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건강위험인자들을 교정하게끔 하는데 중요하다.³⁴⁾ 이에 예비의사로서 성적 요구도는 높고 성병 관련 지식은 낮아 상대적으로 성전과 질환에 취약한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요 약

목적: 성적 요구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성병에 취약한 인구집단인 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지식은 성 관련 질환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미래의 의사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해 지도자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의대생의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 정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성병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이에 따른 예방교육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4년 3월, 서울 소재 일개 대학교의 의대생 110명과 동 대학 비의과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과 성경험 여부를 묻는 자기기입식의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결과: 최종 의대생 86명과 비의대학생 59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는데, 성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군은 남성이 여성보다(44.00% vs 7.14%, $P < 0.001$), 의대생이 비의대생보다(36.1% vs 11.9%, $P = 0.015$) 높았다.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은 총 19문항 중에서 8개 문항의 평균 점수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그 중 한 개의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 및 총점에서 의대생의 점수가 높았다($P = 0.001$). 성경험 유무에 따른 AIDS 및 성병 관련 지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론: 의대생들이 비의대생에 비해 AIDS 및 성병에 대한 지식 점수가 높았다. 하지만 AIDS 및 성병에 대한 지식정도와 성경험 여부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중심단어: AIDS, 성병, 의대생

참 고 문 헌

1. 통계. 사망원인 2005. http://kosis.nso.go.kr/cgi-bin/sws_999.cgi
2. Demmer C. AIDS and palliative care in South Africa Am J Hosp

- Palliat Care 2007;24(7):7-12.
3. 박영숙, 오윤희. HIV 감염자의 삶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5;11(2):110-9.
 4. Yang BM. Economic impact of HIV/AIDS infection in Korea. at the 7th International AIDS Symposium: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s of HIV/AIDS Infection in Korea, Seoul, 2004.
 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port. Estimated cases of adult HIV infection and AIDS. 1999.
 6. 엄창환, 이혜리, 최윤선. 젊은 미혼 남성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1;4(1):4-13.
 7. DiClemente R, Zorn J, Temoshok L. A Survey of knowledge, attitudes and beliefs about AIDS in San Francisco. Am J public health 1986;76(12):1443-5.
 8. 오정아. 일부 중·고등학생들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9. 장순복. 대학생 성병예방의 심리적 단계. 대한간호학회지 1997;27(2):423-32.
 10. CDC. A Preventive Marketing Initiative, Behavior Change Paradigm. Preventing the sexual transmission of HIV and other STDs among a generation of young people 25 years of age and under: Issue Paper, 1993.
 11. Fauci AS, Lane HC.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disease: Harrison's principles of Internal Medicine. 16th ed. 2005; 1076-139.
 12. 최명숙, 하나선.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경험, 성적 자율성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004;10(4):318-30.
 13. 손애리, 천성수. 전국 대학생의 성의식, 첫 성경험 및 성행동에 대한 성차. 보건과 사회과학 2005;18:73-100.
 14. Alexander B, ColeMcGrew M. Adolescent sexuality issues in office practice. Am Fam Physician 1991;44(4):1273-81.
 15. Tuttle AM, Ford B, Habgood R, Grant M, Bekiaris J. AIDS-related beliefs and behaviors of Australian university students. Med J Aust 1989;150(7):371-6.
 16. McGuire E 3rd, Shega J, Nicholls G, Deese P, Landefeld CS. Sexual behavior, knowledge, and attitudes about AIDS among college freshmen. Am J Prev Med 1992;8(4):226-34.
 17. 강현숙.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태도와 성경험의 관계 연구. 최신의학 1989;32:121-5.
 18. 신영익, 김재홍. 남성 성인성 질환(성병) 환자의 감염원에 관한 역학적 고찰. 대한피부과학회지. 2001;39(11):1253-8.
 19. 송경희, 조명숙. 일부 대학생들의 보건교육 수혜에 따른 B형 간염 및 AIDS에 관한 지식도. 한국위생과학회지 2002;8(2):175-81.
 20. 박상화, 임달오, 이봉경, 한정호. 남자 대학생의 콘돔, 성병/에이즈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인구의학연구논집 2002;15:46-55.
 21. 김남초, 오정아, 한혜자, 김미혜, 김준권, 이혜자 등. 일부 군 사병의 성 의식과 에이즈에 대한 지식 및 태도.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02;16(2):225-38.
 22. 최석, 성낙진, 박기흠. 의료군과 비의료군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건강지식의 비율. 가정의학회지 1997;18(7):752-61.
 23. Glanz K, Fiel SB, Walker LR, Levy MR. Preventive health behavior of physician. J Med Educ 1982;57(8):637-9
 24. Wyshak G, Lamb GA, Lawrence RS, Curra WJ. A profile of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physicians and lawyers. N Engl J Med 1980;303:104-7.
 25. Coe RM, Miller DK, Wolff M, Prendergast JM, Pepper M. Attitudes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medical and law student. Am J Pub Health 1982;72:725-7.
 26. 박정현, 전혁진, 오미경, 이혜리, 윤방부. 전공의와 일반인의 건강증진행태. 가정의학회지 1990;11(8):1-8.
 27. 오정열, 이영미, 서학은, 조경환, 홍명호. 의사와 일반인의 건강증진행태 비교. 가정의학회지 1992;13(11):870-90.
 28. 최광원. 의과대학생의 건강증진 행태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1993
 29. 김주연.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인식, 태도 및 성 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 1993.
 30. 엄창환, 최윤선, 조경희. 젊은 미혼 남성에서의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는 집단과 매춘부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서의 에이즈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한국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2001;4:122-9.
 31. 이태연, 안권순. 대학생의 성 행동에 미치는 자기개념과 규범지각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2004;11(2):141-61.
 32. Wells KB, Lewis CE, Leake B, Ware JE Jr. Do physicians preach what they practice? A study of physicians' health habits and counseling practice. JAMA 1984;252(20):2846-8.
 33. Peter PM: Health education and risk assessment; a new role for physicians in primary prevention. CMAJ 1980;120:623-62.
 34. Shangold MM: The Health Care of Physicians: 'do as I say and not as I do'. J Med Educ 1979;54(8):668.